홀수형

답

③	⑤	②	④	①
④	③	③	④	①
②	①	④	④	①
④	③			

상세 해설

1번 정답: ③

지문의 마지막 문단에서 "효과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글의 특성과 자신의 지식수준에 따라 메타인지 전략을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상황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결론 부분에서도 "텍스트 이해라는 목표와 인지적 노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답 분석]

①번: 글쓴이는 배제가 아닌 선택적 활용을 주장합니다.

②번: 오히려 과도한 메타인지 활동의 부작용을 지적합니다.

④번: 두 이론의 보완적 관계를 제시하지 완전 대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⑤번: 의식적 억제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용을 강조합니다.

2번 정답: ⑤

지문에서는 "메타인지적 점검 자체가 이 제한된 인지 자원을 소비하므로"라고 명시하여, 메타인지 활동이 작업 기억의 제한된 용량 내에서 이루어짐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작업 기억의 용량과 무관하다는 ⑤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①번: "글의 난이도가 독자의 배경지식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과도한 점검은... 방해한다"에서 추론 가능합니다.

②번: 같은 부분에서 배경지식 부족 시 과도한 점검의 부정적 효과를 설명합니다.

③번: 메타인지적 점검과 텍스트 처리가 모두 제한된 작업 기억을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④번: 마지막 문단에서 "익숙한 주제의 글이라면... 중요한 개념이나 논리가 바뀌는 부분에서만 이해를 점검한다"고 제시합니다.

3번 정답: ②

<보기>의 A는 비전공자로서 어려운 양자역학 텍스트를 읽으면서 매 문장마다 과도한 메타인지적 점검을 수행했습니다. 지문에 따르면 "복잡한 텍스트 처리와 동시에 수행될 때 인지적 과부하를 초래"하고 "과도한 점검은 독자의 주의력을 분산시켜 정작 텍스트 내용 자체에 대한 처리를 방해"합니다. A의 상황이 정확히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①번: A는 매 문장마다 이해도를 점검했으므로 메타인지 활동을 과도하게 수행한 것입니다.

③번: 지문은 숙련도와 관계없이 상황에 맞는 전략 사용을 강조합니다.

④번: 계획 단계 생략이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점검이 문제입니다.

⑤번: 배경지식이 충분했다면 오히려 선택적 점검이 적절합니다.

4번 정답: ④

이 선지가 틀린 이유는 지문 어디에도 "패러다임의 위기가 도래하면 즉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체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문의 4문단에서는 "패러다임의 위기가 도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위기의 조건'과 '실제 전환'은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지문은 패러다임 전환이 "기존의 권위 있는 지식 체계의 저항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어, '즉시 교체'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①번이 맞는 이유: 1문단에 "과학 공동체는 공유된 이론, 법칙, 방법론의 총체인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정상 과학' 시기를 보낸다"고 명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문의 핵심 개념인 '정상 과학'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②번이 맞는 이유: 2문단에 "변칙 현상이란 기존 패러다임의 예측과 명백히 어긋나는 관찰 결과나 실험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변칙 현상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지는 이를 '일치하지 않는'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었을 뿐 동일한 의미입니다.

③번이 맞는 이유: 2문단에 "오히려 기존 이론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조 가설을 추가하여 변칙 현상을 설명하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학 공동체가 패러다임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⑤번이 맞는 이유: 마지막 문단에 "당대에는 비과학적이라 비판받던 이론이 훗날 정설로 인정받는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멘델의 유전 법칙이나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멘델의 유전 법칙이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정답: ①

패러다임 방어 기제의 모순적 성격은 4문단 첫 문장에 핵심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억압의 수단은 대부분 '엄격한 과학적 검증'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므로". 표면적으로는 과학의 엄밀성을 지키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지적하듯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 가능성을 의도치 않게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과학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과학 발전을 저해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오답 분석]

②번이 틀린 이유: 지문은 변칙 현상을 설명하려는 노력 자체를 모순으로 보지 않습니다. 2문단에서 "기존 이론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조 가설을 추가"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학 활동으로 제시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결국 설명에 실패한다는 점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막는다는 점입니다.

③번이 틀린 이유: 지문 어디에도 이론적 안정성 추구가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2문단에서 "이론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라고 언급되지만, 이것이 불안정성으로 이어진다는 서술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패러다임은 상당 기간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④번이 틀린 이유: 지문은 방어 기제가 '의도치 않게' 작동한다고 설명합니다(2문단 마지막). 또한 4문단에서 "외부에서는 물론 내부에서조차 인지하기 어렵다"고 하여, 과학자들이 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식적/무의식적 구분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⑤번이 틀린 이유: 3문단의 방어 기제들은 젊은 과학자들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며, 4문단의 "차세대 과학자들의 지지 확보"는 패러다임 위기의 조건이지 방어 기제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선지가 제시하는 모순 구조 자체가 지문에 없습니다.

6번 정답: ④
학회에서 특별 세션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해당 문제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증가했음을 보여줄 뿐, 패러다임 전환이 완료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지문의 4문단은 패러다임 위기의 '조건들'(변칙의 축적, 대안적 설명 체계의 등장, 차세대 과학자들의 지지)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기>의 상황은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패러다임의 실제 전환은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하듯 "기존의 권위 있는 지식 체계의 저항을 극복"하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답 분석]
①번이 맞는 이유: 3문단에 "기존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가설이나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이 주요 학술지에 게재되지 못하도록 동료 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갑의 상황이 정확히 이에 해당합니다.
②번이 맞는 이유: 을은 갑의 이론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연구팀에서 유사한 현상을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변칙 현상이 실재한다는 것을 권위 있는 과학자조차 부정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2문단에서 설명하는 "관찰자의 실수나 실험 장비의 결함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③번이 맞는 이유: 4문단의 세 번째 조건인 "차세대 과학자들의 지지 확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문은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지적·경력적 투자가 적은 젊은 세대의 과학자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지지를 전환"한다고 설명하는데, <보기>의 신진 연구자들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⑤번이 맞는 이유: 3문단의 셋째 수단인 "기존 패러다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도전을 '비과학적' 혹은 '사이비 과학'으로 폄하하거나, 확립된 연구 절차나 방법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과 일치합니다. 을이 "기존의 검증된 방법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이 바로 이 방어 기제의 작동입니다.

7번 정답: ③
연구 자원의 통제(3문단)는 "비주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탐구하려는 연구자에게 연구비나 연구 시설이 배분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이는 대안적 이론을 개발하고 검증할 기회를 제한하여 "대안적 설명 체계의 등장"(4문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변칙 현상 자체는 자연에서 발생하는 객관적 현상이므로, 연구 자원이 통제되어도 계속 관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변칙의 축적"(4문단)은 여전히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패러다임 방어 기제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오답 분석]
①번이 틀린 이유: 방어 기제가 강하게 작동한다고 해서 변칙 현상의 발생이나 축적 속도가 빨라진다는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칙 현상은 자연 현상으로서 방어 기제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방어 기제는 이미 발생한 변칙 현상을 무시하거나 억압할 뿐, 그 발생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②번이 틀린 이유: 동료 심사는 논문 게재를 막을 수 있지만, 변칙 현상 자체의 발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2문단에서 변칙 현상은 "관찰 결과나 실험 데이터"라고 정의되는데, 이는 논문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험실에서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4문단의 "무시하거나 설명하기 힘든 근본적이고 중요한 변칙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④번이 틀린 이유: 4문단에서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지적·경력적 투자가 적은 젊은 세대"라는 표현은 방어 기제가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젊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방어 기제의 완전한 해체가 선행조건이라는 내용은 지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⑤번이 틀린 이유: 마지막 문단의 멘델과 베게너 사례는 당시 '비과학적'으로 분류되었던 이론이 후에 정설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지적 권위를 통한 억압이 일시적일 뿐, 변칙 현상이나 새로운 이론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주장과 정반대입니다.

8번 정답: ③
③번의 "의도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발전 가능성을 제한함"이 이 맥락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패러다임 방어 기제는 과학의 엄밀성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과 과학의 혁명적 발전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는 의도와 결과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문이 강조하는 패러다임 이론의 핵심 통찰입니다.
[오답 분석]
①번이 틀린 이유: '권력을 사용하여 강제로'라는 표현이 부적절합니다. 지문은 패러다임 방어가 '의도치 않게' 이루어지며, 명시적인 권력 행사보다는 동료 심사, 연구비 배분 등의 제도적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자유롭지 못하게 함'보다는 '발전 가능성을 제한함'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②번이 틀린 이유: '정당한 권리나 요구'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변칙 현상이나 새로운 이론이 반드시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지문은 이를 권리의 문제가 아닌 과학 발전의 문제로 다룹니다. 또한 이 선지는 의도성을 전제하는데, 지문은 '의도치 않게'를 강조합니다.
④번이 틀린 이유: '물리적 힘'은 지문의 맥락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패러다임의 억압은 물리적이 아닌 제도적, 지적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움직이지 못하게 함'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표현으로, 추상적인 과학 이론의 발전을 다루는 지문과 맞지 않습니다.
⑤번이 틀린 이유: '감정이나 욕구'를 '내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차원을 다루는 표현입니다. 지문의 억압은 개인의 내면이 아닌 과학 공동체의 제도적 차원에서 일어나며, 억제의 대상도 감정이 아닌 새로운 과학 이론과 패러다임입니다. 또한 '내적으로'라는 표현은 지문이 강조하는 외부적, 제도적 메커니즘과 맞지 않습니다.

9번 문제 답: ④
출제 의도: 각 철학자의 기본 입장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정답 해설: ④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문에 따르면 스피노자는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 원인들을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을 뿐, 원인을 인식하면 자유의지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피노자는 자유의지 자체를 "무지에서 비롯된 환상"으로 보았으므로, 원인을 인식해도 자유의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답 분석:
①번: 지문 2문단에서 "인간의 행위 역시 자연 질서의 일부로서 필연적 인과 연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적절합니다.
②번: 지문 3문단에서 흄이 "자유란 외적 강제가 없이 자신의 욕구와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고 나와 있어 적절합니다.
③번: 지문 4문단에서 "인간은 감성적 존재로서 현상계에 속하는 동시에, 이성적 존재로서 예지계에도 속한다"고 명시되어 적절합니다.
⑤번: 지문 3문단에서 흄이 "필연성이란 원인과 결과가 반복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것을 관찰한 후 우리 마음속에 형성되는 기대"라고 본 것이 나타나 적절합니다.

홀수형

10번 문제 답: ①
출제 의도: 흄이 제시한 자유 개념의 핵심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해했는지 평가합니다.
정답 해설: ①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지문에서 흄은 감옥에 갇힌 사람은 외적 강제에 의해, 자발적으로 방에 머무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에 따라" 행동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흄이 구분하는 자유와 부자유의 핵심 차이입니다.
오답 분석:
②번: 흄의 관점에서 두 경우 모두 인과적으로 결정되지만, 자유의 유무는 외적 강제 여부로 구분됩니다.
③번: 흄은 ㉡도 성격과 동기에 의해 예측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④번: 흄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외적 강제의 유무로 자유를 구분합니다.
⑤번: 흄의 관점에서 두 경우 모두 선행 원인이 있지만, 그 원인이 외적인지 내적인지가 중요합니다.

11번 문제 답: ②
출제 의도: 세 철학자의 관점을 정확히 비교하고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정답 해설: ②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흄뿐만 아니라 칸트도 자유와 필연성(결정론)이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칸트는 현상계에서의 인과적 필연성과 예지계에서의 자유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이는 일종의 양립가능론입니다. 따라서 "흄은 칸트와 달리"라는 표현이 부적절합니다.
오답 분석:
①번: 스피노자는 자유의지를 환상으로 보았지만, 흄은 재정의된 자유 개념을 인정했으므로 적절합니다.
③번: 칸트는 예지계에서 인과법칙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므로 적절합니다.
④번: 두 철학자 모두 경험 세계(현상계)에서는 인과법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므로 적절합니다.
⑤번: 흄과 칸트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도덕적 책임을 정당화했으므로 적절합니다.

12번 문제 답: ①
출제 의도: 철학자들의 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정답 해설: ①번이 적절합니다. 스피노자의 엄격한 결정론에 따르면, 갑의 거짓말은 그의 성격(평소 정직함)과 상황(경제적 어려움, 압박감)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적 의미의 도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오답 분석:
②번: 흄의 관점에서 갑은 물리적 강제가 아닌 내적 동기(압박감)에 의해 행동했으므로 자유로운 행위입니다.
③번: 칸트는 예지계의 관점에서 도덕 원칙을 위반한 갑을 비난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④번: 스피노자는 원인을 인식해도 이미 결정된 행위를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⑤번: 흄은 성격과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도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13번 문제 답: ④
출제 의도: 도덕적 책임에 대한 각 철학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정답 해설: ④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스피노자는 모든 행위가 필연적으로 결정되므로 예측 가능하다고 보았고, 흄 역시 인간의 행위가 성격과 동기에 의해 인과적으로 결정되므로 예측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간 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부정"한다는 서술은 잘못되었습니다. 오히려 두 철학자는 서로 다른 이유로 도덕적 책임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답 분석:
①번: 스피노자의 입장을 정확히 서술했습니다.
②번: 흄은 내적 동기에 의한 행위라면 도덕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③번: 칸트의 이원론적 해법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⑤번: 흄은 양립가능론으로, 칸트는 이원론으로 도덕적 책임을 정당화했습니다.

14번 문제 답: ④
이 문제는 지문 전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평가하는 사실적 독해 문항입니다.
④번은 지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바흐친은 카니발이 "공식 문화의 엄숙함과 위계질서를 일시적으로 전복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니발은 "기존 질서의 절대성이 부정되고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문은 이를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삶의 양가성을 드러내는 창조적 행위"로 해석하며, 일시적 전복과 회귀의 순환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오답 분석]
①번: 첫 문단에 "플라톤이 웃음을 이성의 교란으로 보아 경계한"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정확히 일치합니다.
②번: "동물이나 사물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것은 그것들이 인간적 특성을 연상시킬 때뿐"이라고 정확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③번: "우리가 누군가를 동정하거나 애정을 느낄 때는 그 사람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에도 웃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⑤번: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란... 공식 문화의 이상화된 관념을 전복시키는 미학적 원리"라고 정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5번 문제 답: ①
이 문제는 두 철학자의 웃음론의 핵심 차이를 정확히 비교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고난도 문항입니다.
①번이 정답인 이유는 베르그송은 웃음이 "개인이나 집단의 경직된 태도를 교정하고 사회적 유연성을 회복시킨다"고 보았고, 바흐친은 카니발적 웃음이 "기존 질서의 절대성이 부정되고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두 철학자가 웃음의 기능을 각각 '교정과 회복' vs '부정과 변화'로 다르게 파악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답 분석]
②번: 바흐친은 "독백적이고 권위적인 담론을 거부"한다고 했으므로, 독백적 담론을 강화한다는 서술은 정반대입니다.
③번: 바흐친도 카니발이 집단적 축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차원을 중시했으므로, 개인적 차원만 강조했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④번: 베르그송은 완결과 미완성을 논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흐친이 "열려 있고 미완성인 신체관"을 제시했다고 설명됩니다.
⑤번: 하층 문화의 생명력 긍정은 바흐친의 관점이고, 베르그송은 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6번 정답: ④

이 문제는 지문의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응용력을 평가하는 복합적 사고 문항입니다.

④번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완전히 부정하는 변혁적 실천"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보기>에서 "행사가 끝나면 다시 원래의 역할로 돌아간다"고 명시되어 있고, 바흐친의 카니발도 "일시적으로 전복시키는" 것이므로, 위계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일시적 전도를 통한 점진적 변화이지 혁명적 변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①번: "왕과 거지의 역할이 바뀌는" 카니발의 전도 현상과 역할 바꾸기는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②번: 평소와 다른 역할에서 당황하는 것은 상황 적응의 유연성 부족, 즉 기계적 경직성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③번: "경직된 태도를 교정하고 사회적 유연성을 회복"시키는 베르그송의 이론과 부합합니다.

⑤번: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생성하는" 대화적 관계의 형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7번 문제 답: ③

이 문제는 문맥 속에서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 '교란'은 플라톤이 웃음을 경계한 이유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이성을 '혼란시킨다'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플라톤은 이성의 우위를 중시했기에 이를 방해하는 웃음을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 '교정'은 베르그송이 웃음의 사회적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맥락에서 경직된 태도를 '개선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유연성 회복이라는 건설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오답 분석]

①번: '수정'은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로, '개선'보다 제한적이고 기계적인 뉘앙스입니다.

②번: '방해'는 단순히 막는다는 의미로, '혼란'보다 피상적입니다.

④번: '치료'는 병리적 상태를 전제하는데, 지문의 맥락과 맞지 않습니다.

⑤번: '분열'은 나누어진다는 의미로, 교란보다 과도하게 강한 표현입니다.